대 한 국 제 법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 회원님

제목 : 김민서 학회장 퇴임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퇴임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청사(靑蛇)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 무렵 학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긴장감으로 시작해서 1년간의 학회 업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니 다소 홀가분한 기분도 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학회의 활동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 자료의 사업 및 결산 보고에 자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정기총회 자료와 회원수첩은 이제 학회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의 양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회원 수였는데, 현재 학회명부 기재 인원은 447명이고 영구회원이 250명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회원님들께 화두로 드린 말씀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제법 질서였습니다. 학회가 8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10년 뒤, 30년 뒤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해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의 하나는 작년 11월 이틀 일정으로 개최된 제9차 국제해양법 학술대회였습니다. 발효 30주년이 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소재로 한 세미나의 첫날 마지막 세션은 대륙붕을 다루었는데,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니카라과 대 콜럼비아 판결이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을 육지의 자연적 연장보다 우선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육지의 자연적 연장 개념이 현저하게 후퇴하였다고(half dead) 발표자가 설명하자, 육지의

자연적 연장보다 200해리 대륙붕이 우선 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2023년 판결은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는 한 재판관의 논평과 기존의 법리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을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경우 (가령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또 다른 재판관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유튜브 참조) 최대 12해리를 가질 수 있는 영해보다 대륙붕의 폭은 최소 15배가 넘습니다. 영해와 대륙붕은 영해측정기선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해안선이 볼록하거나 오목한 형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하게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적용하게 되면 영해보다 수역의 폭이 최소 15배나 넓은 대륙붕에서는 경계 획정 시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제시된 (형평(equity)이 아닌)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을 연상시키는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한 합의(agreement)가 중요한 것은 아닌지요? 아무튼 2023년 판결이 선례로서 가지는 의미는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회는 이전에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활동이 몇 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사무국의 업무가 급증하였고 학회의 운영에 어려움도 생겼습니다만 작년 5월 대학교 교직원이었던 사무국장을 새로 영입하면서 사무국과 학회의 운영이 안정화되었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일 년 동안 학회의 업무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은 2024년 직무 이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회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생명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학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김민서